

광주역 주변 도시 재생사업 '급물살'

땅 매입 문제로 발 묶여 '지지부진' 철도공단, 광주시에 부지 매각 합의 2025년까지 1조2000억원 투입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육성 추진



14일 부지 매입 문제로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일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역 일대의 전경. 다행히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땅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해당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적극 설득한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땅 매입 문제로 발목이 묶였던 광주역 주변 도시 재생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땅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에서 긍정적으로 해당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워 대표적으로 낙후한 구도심 광주역 주변이 세단장할 토대를 만들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도시 재생 국가혁신지구 부지 변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가 노선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고수해왔던 '매각 반대'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도 '토지 가치 상승'이라는 이유로 당초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달빛내륙철도 저촉 문제 해소와 철도공단에서 혁신지구 편입부지(중흥동 611-22, 611-26) 매각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내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앞서 지난 4월 경영전략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경유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지매각 관련 부결 결정을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입장선화는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인데도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국가혁신지구 내 선정된 그린스타트업타운(중기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산업부) 등 타 부처 공모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를 지

적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르면 오는 2025년까지 광주역 일대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 1조 2000억원을 투입하고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민간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호남권 최대 창업 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광주역 도

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은 2020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광주역내 철도부지 1만4000㎡에 1688억원을 투입해 그린디지털분야 창업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현재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등 모두 3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기반형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의문화산업의 신경계거점 조성'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국비와 시비 등 27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주역 구내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를 통해 확보되는 공간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복합개발 사업 등을 검토 중인데, 광주역 부지 20만㎡에 7000억원대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교통, 산업, 주거가 복합된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도시철도 2호선, 최근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 경전선(광주역~순천) 전철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연계해 광주역을 교통 중심지로 되살릴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개발 사업을 통해 2조원 생산 유발효과, 1만6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철도공단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철도공사의 경우 경영전략위원회에 안건 재상정을 해야 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일부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역 철도부지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환율 1390원 돌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1400원대 진입 초읽기 돌입

14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여 만에 1390원대를 돌파한 뒤 1395원대까지 치솟으며 1,4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7.3원 오른 달러당 1390.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4원 급등해 1393.0원에 출발한 뒤 오전 9시 37분께 1395.5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2009년 3월 30일(종가 기준 1391.5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환율이 급등한 것은 전날(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가 급등한 여파다.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0%보다 높았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 폭을 늘린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6.0%, 전월 대비 0.3%)를 크게 웃돌았다.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급부상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다만 급등한 달러는 오후 들어 아시아장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 추가적인 레벨 상승은 제한됐다.

8월 CPI 발표 이후 110선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가 109선으로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 38분께 1389.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위안화와 엔화도 진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5·18 왜곡 배상"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 ▶6면

부상에 쉬는 황대인·부상서 복귀 김도영 ▶18면

신 팔도명물 - 전북 장수 한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

사상 최초 전남 예산 11조원 시대 개막!
2022년 국고예산 8조원 돌파!
역대 최대 SOC 국가계획반영 쾌거!

